

#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영국 (스코틀랜드)
	대학명	University of Glasgow
파견기간	2024년 1월 ~ 2024년 6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고고학	

##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 1) 유학생 보험

저는 SAF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환학생을 갔기 때문에 saf측에서 마련해준 유학생 보험을 신청하였고 또 만약을 대비하여 삼성화재 글로벌케어(장기체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2) 비자

영국은 6개월 미만은 무비자로 거주가 가능하여 딱히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입국 할 때도 한국인은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여 비자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 3) 항공권

국제학생증을 발급한 대학생이라면 ISIC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일 저렴한 가격이었던 핀에어를 이용하였습니다. 학생할인 및 혜택을 받아 수하물 23kg 2개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12월 30일 오후 11시에 출발하여 13시간 40분 비행 후 헬싱키에서 한번 환승하여 2시간 10분 대기 후에 런던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헬싱키에서 런던까지는 3시간 20분 소요되었습니다. 총소요시간은 19시간 10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은, 로마에서 7.8일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하였고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isic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 할인과 혜택을 받아 예약하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한번 환승하여 총 17시간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제가 파견 나간 곳은 영국의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지방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에 속하긴 하지만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이나 자치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등의 차별화된 요소들을 통해 영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도 악센트가 강하고 독특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코틀랜드로 교환학생을 간다면 미리 스코틀랜드 억양을 이해하고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물가는 영국의 파운드(GBP)를 사용하고 있고 환율은 1,750원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 수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우 최소한 30,000-40,000원은 기본으로 지출했던 거 같습니다. 유명한 슈퍼마켓으로는 marks and spencer(m&s), tesco, lidl, sainsbury's 등이 있는데 lidl이 식료품을 구매하기에는 제일 저렴하였습니다. tesco는 늘 회원 할인을 하기에 멤버십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교환학생 도중 유럽 여행도 하고 싶었기에 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 혹은 아일랜드의 학교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고 학교에서 교환을 맺은 대학교 중에서는 셰필드 대학교를 희망하였으나 제가 파견 신청을 할 때는 셰필드 대학교가 교환을 받지를 않아서 SAF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saf 프로그램은 사실로 운영되어 많은 명문대학교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고 저는 영국에 있는 ucl, 에든버러, 글래스고 대학교를 희망하였으나 ucl 에서는 제 전공은 교환학생은 안 받는다는 통보를 받아 에든버러 혹은 글래스고 대학교 중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둘 다 스코틀랜드에 위치하기도 하고 공통점이 많아보여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역사가 깊은 글래스고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나-2. 공항- 학교

저는 인천에서 바로 글래스고로 가지 않고 런던을 들렀다가 글래스고로 향하였습니다. 글래스고 공항은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인천공항처럼 국제공항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SAF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픽업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 (프로그램 내용)

저는 프랑스어 기초, EAP라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로 아카데믹한 글쓰기 수업, 그리고 전공인 현대고고학 그리고 교환학생들을 위한 스코틀랜드 역사, 문화 배우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영국에서는 본 강의 수업이 끝나고 따로 세미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수업에서는 소수의 인원끼리 조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 고고학 수업의 세미나에서 스톤헨지의 보수과정과 현재 보존 현황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나-4. 기숙사 (홈스테이, 셰어룸 등)

글래스고 대학교의 기숙사는 모두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여 있고 여러 개의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murano student village에 배정받았고 이 기숙사가 글래스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기숙사였습니다. 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렸고 방은 저 혼자 사용하였지만 그 외의 주방과 화장실, 욕실은 저를 포함한 5명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를 일명 플랫메이트라고 불렀는데 같은 주방을 사용하다보니 플랫메이트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부탁할 일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우선 첫 주에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과 환영회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가 단체로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외에 매주 society가 진행되어 관심 있는 society에 참여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society에서는 주로 펍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 외에도 주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에 학교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본, 아시안, 위스키, 하이킹, 고고학 society에 참석하였는데 각 society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본 모임에서는 주로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일본 음식 박람회, 일본 노래 디제잉 등의 친목과 재미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고고학 모임에서는 주로 초청강사를 초대하여 특별강의를 진행하거나 토론 등 학문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의 분위기였고 또 학교에서도 매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캠퍼스가 넓어서 강의실을 찾기 힘들 수 있는데 Uof Life 앱을 다운받아 지도를 보면 강의실 찾아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도 외에 시간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학교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Authenticator 앱을 통해 인증을 하는데 이 인증을 한번 했다고 앱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중간 중간 인증 요구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은 학기가 다 끝나고나 삭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메일을 보기 위해서는 Outlook 앱을 까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글래스고대학교는 교환학생 친구들을 위한 행사가 별로 없어서 학교 행사나 society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환학생은 친구를 사귀기 힘듭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학교 근처 식당으로는 일식당인 E-sushi 레스토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어덮밥이 일본에서 먹었던 거 보다 더 맛있었고 근처 한식 당중에 제일 추천하는 곳은 ‘신라’ 식당입니다. 특히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교통으로는 만 22세 미만이라면 카드를 신청하여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할 점은 버스에서 이번 정류장은 무슨무슨 정류장이라고 안내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내음성도 안 나오고 화면 앞에 무슨 정류장인지도 안 떠서 구글맵을 보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에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리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글래스고에는 지하철이 있는데 역은 몇 개 없지만 학교에서 시내까지 지하철 3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 오픈한지 몇 년 안되어 다른 지역의 지하철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 3. 여행 정보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저는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이유 중 하나가 주변 국가를 여행하기 위함이었어. 서시간이 있을 때 마다 틈을 내서 여행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모나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등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관광대국으로 유명한 프랑스, 이탈리아가 확실히 볼거리가 많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한국에서 쉽게 가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에 있을 때 갈 생각을 못했는데 기회가 되어 같이 교환학생 온 친구들 6명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도 보고 빙하체험도 하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혼자 여행을 하였는데 호스텔에 머물러 여행을 친구들을 사귀어 같이 여행을 하여 외롭지 않고 좋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글래스고와 가까운 에든버러, 그리고 수도인 런던, 리버풀 등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뜻 깊은 여행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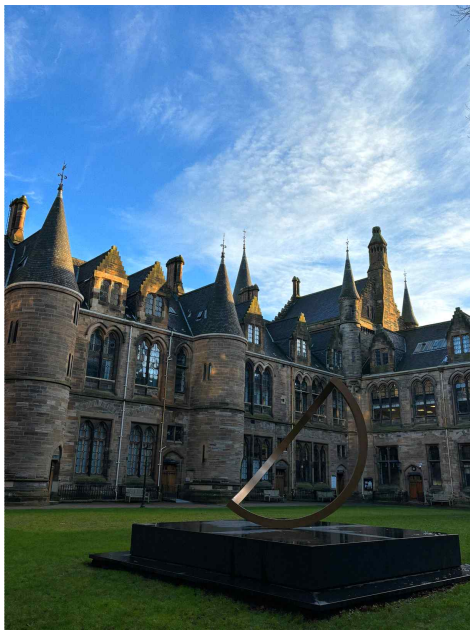
남들에 비해 영어가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막상 가서 친구를 못 사귀다거나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여 이도저도 안하고 중요한 시간을 후회로만 보내는 것 아닌가 걱정하였습니다. 모두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완전 소심한 편이고 남들에게 먼저 말도 못 거는 편이었지만 교환 학교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다가가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진심으로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실력도 같이 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순간의 민망함, 소심함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학기 시작 전 혹은 시작 후에 시간 내어 여행을 가보는 것도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파이팅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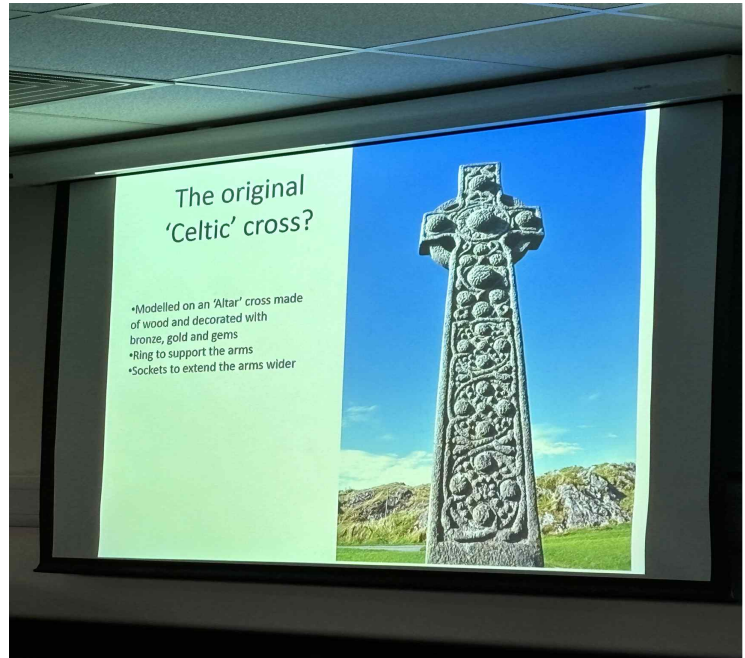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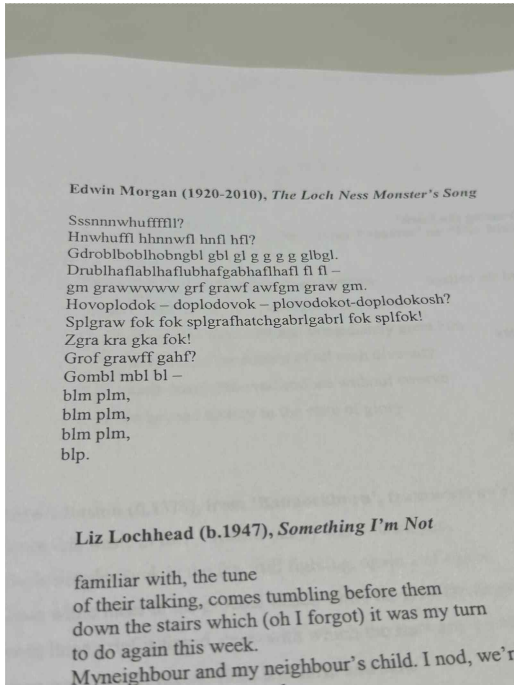
##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 1) 대학교 전경



글래스고 대학교의 캠퍼스는 평소에도 영화 ‘해리포터’의 학교인 호구와트의 실사화라고 유명했습니다. 개교한지 500년이 넘어갈 정도로 오래된 학교인 만큼 그 전통이 건물을 통해 느껴집니다.

## 2) 수업 내용



이 두 사진은 ‘스코틀랜드의 역사’ 라는 수업으로 교환학생만을 위한 스코틀랜드 문화를 이해하고자 진행된 강의였습니다. 두 사진을 보면 영국 즉 잉글랜드와는 다른 언어인 켈트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쓰인 시와 스코틀랜드인의 계통인 켈트족의 문화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 3) Activities

이 사진은 british- asia society의 karaoke party 즉 노래방 파티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으로 저는 이 파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다른 친구들과 불렀습니다.

